

아이유, 어린이날 맞아 1억원... "보호아동 의료비 지원"

등록 2026.05.05 14:00:00



[서울=뉴시스] 손정빈 기자 =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어린이날을 맞아 1억원을 쾌척했다.

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5일 "아이유가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유애나(아이유+유애나) 이름으로 한국아동복지협회와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각 5000만원 씩 총 1억원을 기부했다"고 말했다.

소속사는 "기부금은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보호아동을 위한 물품 및 의료비 지원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생일을 맞았을 때 선물과 문화 체험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"이라고 했다.

아이유는 자신의 데뷔 기념일, 생일, 연말연시 때마다 기부를 하고 있다. 지난해 3월 경상권 일대 대형 산불이 났을 때 피해 지원과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해 2억원, 어린이날에는 아동·청소년을 위해 1억5000만원, 데뷔 기념일과 생일에 각 2억원, 연말엔 2억원을 내놓는 등 나눔을 이어왔다.

아이유는 지난달 10일부터 방송 중인 MBC TV 드라마 '21세기 대군부인'에 출연 중이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jb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